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3

회차 , 예수, 죽음/부활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여기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와 그의 신약 신학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예수, 죽음/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성취에 비추어 무엇을 성취하는지 가르치는 신약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적인 주제나 모티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종말 환난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유배로 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물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구약을 성취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또한 죄를 정화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 번,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유언의 경우, 유언을 작성한 사람의 죽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선포한 후에 그는 송아지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히속 가지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그 의식에 쓰이는 모든 것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사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져야 하며,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희생 제물, 곧

이러한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참 성소의 사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이 그림은 정화나 정화를 제공합니다.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뒤로 돌아가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면 그가 빛 안에 계시듯이 우리는 서로 사귀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거나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특히 히브리서 9장에서 구약의 제사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다시 성취되었고, 지금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제,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체계적 신학 교과서를 집어 들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장과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소위 Christus Victor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의 패배였습니다. 당신은 또한 도덕적 영향 이론과 같은 이론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주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백성이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두 견해 모두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히 Christus Victor는 매우 중요하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예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의 관점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지배적인 강조점은 아마도 예수의 죽음이 대속적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이를 형벌적 대속적 견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들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받을 만한 형벌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인 것과 비슷한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저는 여러분이 이 공통 주제나 지배적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읽고 싶습니다. 5장과 21절.

하나님께서서는 죄가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논의한 내용입니다.

10절,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으니 기록된 바와 같음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절은 율법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에 비추어 볼 때, 대속적 속죄가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거나 지배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제안하는 텍스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텍스트는 대속적 속죄가 그렇다고 제안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됩니다.

즉, 그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저주를 자신에게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제가 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19절을 읽었고, 우리는 흠이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이제 여러분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정결케 되었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을 수 있는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며, 살아 있고 영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도 그런 본문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강의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18절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흠이나 결함이 없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구약의 성취로서 희생양으로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제시됩니다.

다른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공통적인 실마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나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것이 지배적인 실마리인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또 다른 본문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해 제물로 예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뒤에 있는 그리스어는 haloskos 이고 , 명사 형태와 동사 형태는 haloskamai 이며, 논쟁에서 그것과 관련된 단어 그룹은 그것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입니다. 그것을 propitiation으로 번역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해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구절 중 일부에 대한 영어 번역을 비교해보면, 그 중 일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해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와 같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NIV는 한 곳에서 그것을 속죄의 희생으로 번역합니다. 번역은 종종 모호성을 반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장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곧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입니다.

속죄 제사라는 단어는 NIV가 화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번역한 방식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17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NIV도 비슷하게 번역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17, 이런 이유로 그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것은 동사 형태이며, 속죄제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로마서 3장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21절부터 시작하는데, 바울이 모든 인류의 곤경과 죄악을 증명한 후입니다. 사실 인류의 죄악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와 인간성을 쏟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증명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알려졌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사고, 해방하고, 구출하고, 해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다음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제시하셨습니다. 화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화해제나 속죄의 제사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속죄제나 속죄의 제사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속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생각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떠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NIV는 다시 그것을 속죄의 희생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호함을 표현하고 더 광범위한 문구를 선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화해에 싸인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죄를 우리에게 지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화해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어 hilasterion은 화해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속죄, 즉 죄를 닦아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단순히 죄를 제거하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던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Word biblical commentary series에서 그 관점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화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떠넘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8절로 돌아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과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함과 악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하여 드러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 진술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바울의 주장에 있는 요소이므로,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 화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그 이상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예수의 죽음은 화해입니다. 즉, 예수가 보이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또한, 용어를 너무 많이 읽지 않고도, 우리는 이 단어를 구약성경의 자비소, 특히 속죄일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용어가 칠십인역에서 옮겨지는 데 사용되어, 구약성서의 속죄일 기록에 나오는 자비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속죄가 성취되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죄가 확보되는 장소를 찾고, 구약성서의 성취 속에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저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의 제사 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화해의 제사로 제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사로 제시하여 그의 의로움을 증명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이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구약시대의 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26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구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칭의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칭의하고 칭의의 길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칭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의로움과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그들이 죄 많은 동안에도 그들을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입장에 있다고 선언하고, 여전히 자신의 성실성을 유지하고, 여전히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제시된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로 제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죄를 완전히 처리함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고 죄를 위한 화해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정의롭고 의로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종종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준을 낮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기준을 매우 높게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고,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한 가지 영역에서 넘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유죄라는 것을 읽습니다.

야고보는 다른 여섯 가지 본문에서 한 가지 영역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셨고, 이제 그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정의, 의로움,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기초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거룩함과 그의 정의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죄인들, 죄를 지은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분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요구 사항을 어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롭고, 거룩하고, 공정한 기준과 요구 사항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죽음으로 그것을 충족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주제나 모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자유주의 학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도덕적 영향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옹호했지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본적으로 한 일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사랑과 희생적 사랑에 대한 도덕적 모범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진실이 있지만, 확실히 포괄적인 예로는 우리가 살펴본 다른 주제와 모티프 중 일부를 감안할 때 실패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아니, 유일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보고 싶어하시는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의 길을 걸으십시오. 아마도 다른 어떤 책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베드로전서 2장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그러나 당신이 잘못을 행하여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본보기를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의 종의 노래 53장에서 저자 베드로를 인용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모욕을 퍼부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하여 논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그에게 모욕을 퍼부었을 때 그는 보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살펴보던 본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1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24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본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의 몸으로 지셨으므로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상처로 너희는 치유되었다. 이사야 53장의 또 다른 인용문.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 너희는 너희 영혼의 감독자이신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대속적 속죄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백성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충실한 증인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죽으셨듯이, 그의 추종자들도 그들의 충실한 증인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다른 것들 중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범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사항은,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여로 여겨지거나 우리가 참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일됨으로써 실제로 그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의 복음에 대한 잠재적인 오해에 응답하는 부분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즉, 은혜가 증가 하면 우리가 더욱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욱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바울의 응답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니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더 나아가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콜로새서 2장에서 같은 내용을 발견하며, 콜로새서 2장에서 바울의 주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여러분이 허물로 죽었을 때. 사실, 저는 2장 11절에서 그분 안에서 백업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고, 육신에 지배받던 여러분의 온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 벗어났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명확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에 대한 궁극적인 형벌은 죽음이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형벌을 겪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것이 되며,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이 악한 시대의 지배와 통치를 종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 시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로마서 6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는 죄에 노예가 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시대를 끝내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를 옛 시대의 지배와 삶에서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언급하듯이, 예수님은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죄의 통치를 가져오는 데 필요하며, 죄의 시대가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옛 시대의 통치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와 지배를 끝내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은 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대신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죽음은 죄의 지배와 옛 시대의 지배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참여로 여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를 끝내는 죽음,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과 죄의 통치를 끝내는 죽음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짐으로써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할 수 있고, 바울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사실 옛 시대와 죄와 죽음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죽으신 분과 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필연적인 상관관계로 함께 다루어집니다. 둘 중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으며, 부활의 중요성을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 종종 다소 제한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수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제가 자란다는 소식은, 여러분 중 일부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4가지 영적 법칙에 따라 자랐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는 끔찍하고 썩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를 통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이전 섹션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제 죄를 돌보아 주셔서 이제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두 개의 절벽 사이에 틈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 이런 시각적 묘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로 인해 생긴 틈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신약성경을 읽고 실제로 스콧 맥나이트가 쓴 King Jesus Gospel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렸고, 그것을 읽었을 때 더 강렬하게 떠올렸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매우 도전적이고 복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데 도움이 되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신약을 읽으면서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의 복음과 설교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내게 주어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즉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가 누구이셨는지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의 설교를 읽을 때 사도행전 2장과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사도들의 다른 설교나 연설을 읽어보면 부활은 이 좋은 소식의 일부로서 복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과 구약 이야기의 절정에 있는 예수, 이제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활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이나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며, 둘 다 함께 속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으며,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복음 선포를 모두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아마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 정원의 중앙에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지만, 이미 에덴동산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생명을 즐기는 장소였으며, 생명나무로 상징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시와 경고에 따라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기 시작하면 족보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악, 그리고 지금 그의 창조물에 들어온 죽음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25장과 같은 구약의 예언적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기대를 봅니다. 이사야 25장과 예루살렘 8절. 이사야 25장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문장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감싸는 덮개, 모든 민족을 덮는 양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죽음을 삼킬 것입니다. 주권자 주님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수치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생명을 주는 언어를 찾을 수 없지만, 죽음을 물리치거나 죽음을 삼키는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이사야 26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는 그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고로 몸부림쳤지만 바람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일어날 것이다. 먼지 속에 사는 자들이 깨어나 기쁨으로 외치게 하라. 당신의 뭍은 아침 이슬과 같으리라.

땅은 죽은 자를 낳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20절은 새 창조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한 번 영원한 생명이나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새 창조에서 조속한 죽음과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문제가 더 이상 없을 때를 분명히 예견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맥락에서 여러 번 그것을 읽었지만, 에스겔 37장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 다음 뼈가 합쳐지고 살이 그 위에 오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거의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을 띤 이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이것은 반드시 개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의 맥락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몇몇 신약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의 생각에, 부활에 대한 가장 명확한 언급 중 하나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위대한 왕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의 시작부터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나 그때에 네 백성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리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들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무리가 깨어날 것이라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고 다른 이들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얻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2절은 다른 이들이 심판을 위해 일으킴을 받는 동안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적어도 타락한 창세기의 영향이 역전되는 개념을 봅니다. 새로운 창조로의 복귀. 죽음이 삼켜지는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활과 같은 사건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으로 부활할 때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나머지 신약에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배경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복음서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주석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신약에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펴본 것처럼 주요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그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곳입니다. 그는 실제로 와서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대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 사라지거나 문이 잠긴 곳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 시대의 일부이며 우리의 현재 존재의 모든 제한을 가진 몸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인데, 우리는 복음서 기록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다고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의 일부이며, 그는 지금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 중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1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죽음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 중요한 점은 부활이 사후 세계나 사후 이후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활은 현재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원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죽음에서 예시된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우리의 예수 자신의 부활에서 예시된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부활에서도 예시되었으며, 이는 죽음이 마침내 패배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을 더욱 풀어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여전히 마지막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후에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몇 분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단지 몇 가지 특징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통치자 다윗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부활 로의 전환이 계속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임명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저는 뒤로 돌아가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서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는 지상에서 다윗의 후손이셨고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다윗의 아들처럼 예수가 그의 메시아적 통치와 그의 메시아적 통치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비슷한 주제를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19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믿는 우리를 위해 언급합니다. 그 능력은 그가 가진 것과 같은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역에서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행사하신 강력한 힘과 같은 능력입니다.

오른손은 시편 110편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미 다윗의 왕의 시편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권능과 주권, 그리고 현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 불러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 또는 메시아적 통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의 영역에서 훨씬 높은 곳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와 악에 대한 승리로 여겨진다. 요한계시록 1장. 그 책을 빼놓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종종 종말론과 연관시키는 책이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또한 매우 풍부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다.

이미 책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요한의 입문 환상에서 실제로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문 환상에서 9절에서 시작되는 흥미로운 언급을 발견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고, 17절에서 죽은 자로 쓰러진 다음, 예수께서 그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 있는 자요 나는 죽었었고 이제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 있고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과 악에 대한 승리이며, 그래서 요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보다 앞서, 1장 5절에서 여러 차례 읽은 인사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한 증인으로 묘사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한 증인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 집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그들의 증거를 위해 죽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곧 뒤따를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물리치고 악과 악의 권세를 물리친 자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주제를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를 세우거나 그의 메시아적 통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그를 하늘 영역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권위와 통치의 상황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잘 알려진 부활 본문에서도 비슷한 것을 봅니다.

먼저 24절, 그 다음에 끝이 올 것입니다. 그 아들은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파괴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합니다. 파괴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끝납니다. 그런 다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올 것입니다. 이 본문들과 아마도 다른 본문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이자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의 부활은 그의 입증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자신이 주장하는 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 속에서 그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통받고, 예수는 고통받고 죽지만, 그런 다음 그의 부활은 그를 정당화하고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를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대하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입증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파한 내용의 부담이라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그를 죽이고 그의 청중과 반대자들이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그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서 뒤로 돌아가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또 다른 주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그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에 의해 그리고 그에 따라 조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예지에 의해 당신에게 넘겨진 이 사람과, 당신은 사악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하셨으니,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승리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다는 주제를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진 그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에 그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36절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메시아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36절은
 이것 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수를 너희 유대인 당국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죽인 자, 이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써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우선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부활을
 통해 메시아적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승리와 악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메시아로서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시대를 끝내고,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지만,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 속으로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창조를 시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새 창조에
 참여하여 새 생명 안에서, 새 삶의 질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콜로새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입니다.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왔느니라.

옛것은 사라졌습니다. 보라, 새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사야 65장과 16, 17절에 나오는 새 창조에 대한 암시이며, 그 다음에 이사야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창조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창조에 속하고 참여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왜 새로운 창조에 기여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예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며, 예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와 합해짐으로써 그 삶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로마서 6장과 고린도후서 5장과 이사야 65장과 같은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부활은 구원의 새 시대를 시작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써 참여하는 새 창조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부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성령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에서 시작하여 성령이라는 신학적, 성경적-신학적 주제의 신약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데이브 매튜슨 박사와 그의 신약 신학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예수, 죽음/부활입니다.